

4

한국 마라톤
세계를 제패하다

1

마라톤의 신기원을 연 손기정

1936년 8월 9일 일요일 밤 11시 2분,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광화문 동아일보사(현 일민미술관)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몰려들어 있었다. 광화문 네거리의 동아일보 건물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사람들은 동아일보사 2층 창문 바깥의 스피커를 통해 중계되는 일본 방송국 NHK의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라디오 중계방송(JODK·경성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 아나운서 야마모토의 일본어 방송이었다. 당시 라디오가 있는 가구 수는 조선팔도 통틀어 4만이 넘지 않았다.

사람들은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뿐만 아니라 종로 대창양화점 앞, 중학동 일대에 있는 다른 언론사 앞에도 모여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양정고보 육상경기부원들은 합숙을 하고 있던 황금정의 송도여관에서 애간장을 녹이며 손기정, 남승룡 선배의 선전을 빌고 있었다.

동아일보 귀빈실에는 장안의 내로라하는 체육계 인사들이 둘러앉아 NHK 라디오의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중계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양정고보 교장 안중원, 교무주임 서봉훈, 고려육상경기협회 이사 최재환, YMCA 체육부

주임 정권, 1932년 LA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6위 입선자인 김은배 등이 바로 그 면면이었다.

중계방송은 스피커를 통해 광화문 네거리에도 크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중계방송은 8월 10일 자정을 기해 끊겼다. 손기정이 17km 지점을 막 지날 때였는데, 그는 선두 자발라(아르헨티나)를 맹추격 중이었다.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발을 굴렀다. NHK는 밤 11시와 오후 6시 30분 각각 1시간씩 하루 두 번밖에 올림픽대회 실황을 중계하지 않았던 것이다.

올림픽대회 최고기록 우승 “손기정 만세”

동아일보사 앞에서 진을 치고 라디오 중계방송을 듣고 있던 시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가거나 인근 청진동 피맛길 대포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동아일보사에 초청된 인사들도 입맛을 다셨지만 별수 없었다. 그들은 4년 전 LA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던 김은배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속속 편집국에서 넘어오는 베를린 소식을 접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편집국 안은 기자들이 피워 낸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운동부 기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도쿄와 베를린에 선을 대기 위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대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베를린 올림픽대회 취재반장 격인 이길용이 가장 바빴다.

이길용 기자는 조선 체육계의 마당발이었다. 키는 작달막하고 체구는 호리호리했지만 눈은 광채로 번득였다. 그는 이미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선 내일 아침 당장 호외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석간이었다. 이길용은 사회부 편집담당 장용서 기자를 불렀다.

“윤치호 회장 댁에 간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야. 틀림없이 손기정이 우승할 테니 그럴 경우 윤 회장 소감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윤치호는 1928년 이래 8년 동안 조선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어서 동아일보사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1936년 8월 10일 새벽 1시 20분.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는 다시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몰려들었다. 손기정의 베를린 마라톤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다. 어림잡아도 조금만 있으면 선두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우승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맛비는 그해 7월부터 줄기차게 내렸다(8월 14일까지 조선 전국 사상자가 총 265명, 이재민이 무려 6만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8월 14일부터는 낙동강이 범람해 삼랑진, 구포, 양산, 김해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

이윽고 동아일보 사옥 2층 창문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손기정 군이 2시간 29분 19초 2 올림픽대회 신기록으로 일착으로 들어와 우승을 했습니다. 남승룡 군도 3위로 들어 왔습니다.”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그 순간 “와” 함성을 질렀다. 여기저기서 “손기정 만세, 남승룡 만세”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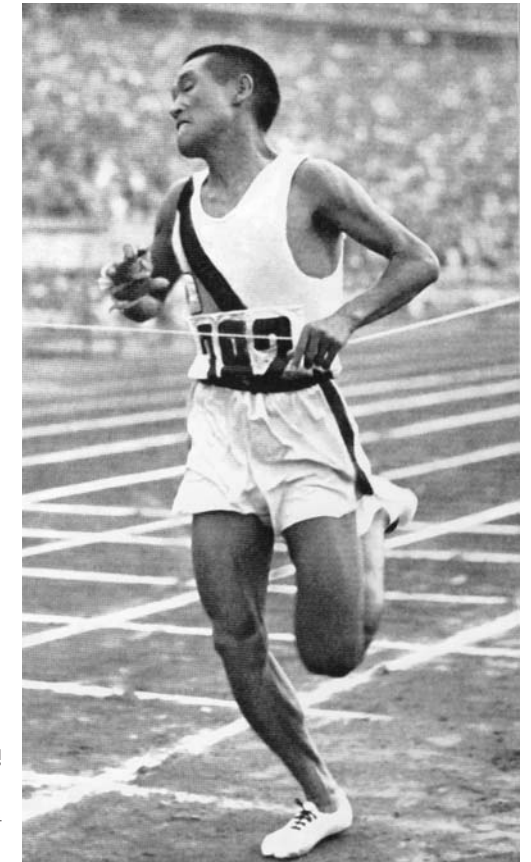
그러다 누군가 “조선 만세”를 외쳤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만약 일본인 순사가 들었다면 큰일 날 소리였던 것이다. 하지만 금세 “손기정 만세”가 폭죽처럼 터지며 그 어색한 순간은 ‘소리의 바다’에 묻혀 버렸다. 모두들 우산도 내던져 버렸다. 누가 시킬 것도 없이 모두들 거리로 쏟아져 나가 “손기정 군이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했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날이 새도록 서울 장안 곳곳을 누비며 목이 터져라 “손기정 우승”을 외치고 다녔다.

조선체육회장 윤치호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초저녁부터 몰려온 기자들 탓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몸도 아프고 긴장돼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였다. 그도 손기정의 우승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치호는 손기정의 우승이 확실해지자 서서히 아픈 몸을 일으켜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피력했다.

“손기정 군이 우승하였다는 것은 조선 청년의 앞날이 우승하였다는 예언이자



사진: 강희규 제공



▲ 마라톤 우승 후 국내 언론사와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손기정(왼쪽)과 동메달리스트인 남승룡.

▼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1위로 들어오는 손기정. 그의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로 당시 올림픽대회 최고기록이었다.



사진: 강영구 제공

1위를 한 손기정(가운데)이 3위 남승룡(왼쪽), 2위 하퍼 등과 함께 1936년 8월 9일 시상대에 오르기 직전 나란히 서 있다.

산 교훈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 조선 청년이 스포츠를 통하여 특히 세계 20억을 상대로 하여 가지고 당당 우승의 영광(榮冠)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곧 우리 조선의 청년이 전 세계 20억 인류를 이겼다는 것이라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이 위에서 없다.”

서울 장안 백성들이 올림픽대회 마라톤 소식에 애를 태울 무렵, 지구 저편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대회 주경기장에서는 장내 중계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한국 대학생은 세계의 건각들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그 한국인은 마라톤 구간 내내 아시아의 힘과 에너지로 뛰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을 뚫고, 거리의 딱딱한 돌 위를 지나 뛰었습니다. 이제 그가 엄청난 막판 스퍼트로 질주하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랙의 마지막 직선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1936년 올림

픽대회 우승자 ‘손’이 막 피니시라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손은 결국 우승할 것이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남자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은 베를린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공식 지칭됐다. 독일 역사박물관 독일방송기록보관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베를린 올림픽대회 스타디움에서 12만 관중을 상대로 한 남자 마라톤 생중계에서 피니시라인에 들어오는 손기정을 ‘한국 대학생(실제 양정고 5학년)’ 또는 ‘한국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섯 개의 그룹 중 일본팀은 첫 번째 그룹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올림픽대회를 위해 특별히 선발되었고 한 번도 올림픽대회에서 뛰어 보지 않은 신예들로 이름은 남(Nam), 시오아키(염전 인부 출신), 손(Son)입니다. 일본팀 감독의 말로는 ‘손’을 이기려면 태양이 작열하든, 비가 오든, 자갈밭이든, 풀밭이든 초인적으로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이 결국 우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이던 자발라는 반환점을 1시간 11분 9초로 가장 먼저 돌았고 2위 그룹인 손기정과 영국의 하퍼는 그보다 1분 10초 늦었다. 초반 오버페이스를 한 자발라는 점점 발이 느려졌다. 손기정은 아푸스 자동차도로부터 하펠 호숫가 코스로 접어드는 29km 지점에서 자발라를 제치고 선두에 나서 피니시라인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단독 질주했다.

“자발라는 속도가 느려지고 불안정해집니다. 급기야 자발라의 반짝이는 옷 색깔이 선두 진영에서 사라집니다. 이번 마라톤의 유망주였던 카를로스 자발라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제 선두에서 200m 뒤쳐져 있습니다.”

피니시라인 100~200m 앞에서 손의 질주 모습을 아나운서는 “막판 엄청난 스퍼트로 질주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1936년 8월 9일 오후 3~6시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의 레이스 조건은 이

손기정은 왜 마지막 100m를 필사적으로 달렸을까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경기 진행요원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는 손기정 선수.

손기정은 왜 피니시라인을 100m 앞두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렸을까. 당시 외국의 한 감독은 “수동시계로 재어 본 결과 마지막 100m는 15초 정도에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는 손기정의 100m 평균 21초 23, 우승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보다 6초 23 빠르게 달린 것.

그는 생전 “10만 관중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고무되기도 했고, 누가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당시엔 뒤를 돌아보면 실격은 아니지만 정당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아서 달리면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라고 말했다.

또한 손기정은 레이스 내내 25km 지점에서 딱 한 번만 물을 마셨다. 40km 지점에서 독일 적십자사 요원이 물을 컵에 담아 줬지만 입을 한 번 행군 뒤 뺐었고 나머진 머리에 쏟아 부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당시에는 물을 마시면 배가 출렁거리거나, 배가 아파 달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km마다 물을 마시며 달리는 요즘 선수들과 좋은 비교가 된다.

한편 손기정이 달리는 모습을 찍은 당시 기록영화 중 일부는 나중에 연출된 것이다. 그가 우승한 다음 날 당시 베를린 올림픽대회 기록영화 ‘민족의 제전’을 총지휘하던 레니 리펜슈탈 감독에게 불려가 달리는 모습을 다시 찍어야 했다.

생전 손기정의 회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달리라고 해서 나중에 러닝셔츠를 뒤집어 입고 뛰었는데 그 모습이 기록영화에 잠깐 나오더구먼. 피니시 장면은 실재가 맞는데 중간중간 나중에 찍은 게 나오더라고.”

했다. 섭씨 21~22.3도, 습도 20퍼센트의 맑고 건조한 날씨. 마라톤 최적 기온(섭씨 9도 안팎, 습도 30퍼센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30도가 넘는 찜통더위는 아니었다. 더구나 1~13km와 30~42.195km 구간은 10만 평의 그루네발트(‘녹색 숲’이라는 뜻) 공원을 달리는 숲 속 길. 지금도 200~300년이 넘는 아름드리 나무가 뺨뺨해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다만 13~30km 지점의 직선 고속도로(아푸스아우토반)를 달릴 때 약간 더웠으리라 생각된다. 이른바 ‘빌헬름 황제 언덕(35km)’이나 ‘비스마르크 언덕(40km)’은 없었다. 그 지점은 표고 2m 정도의 약간 오르막 부분일 뿐이었다. 40km 지점의 페르스트라야 철교 아래 S자 오르막은 달려온 탄력으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처럼 당시 코스는 거의 평평했다. 더구나 13~30km 지점은 직선인 고속도로. 아푸스아우토반 중간에 있는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다. 1~13km와 30~42.195km 지점은 10만 평의 그루네발트 공원을 달리는 숲길로 뗏돼지, 토끼, 여우 등이 살 정도라고 한다.

스타트는 오후 3시 2분. 스타디움 트랙을 한 바퀴 4분의 1(500m)을 돌고 빠져나갔다. 손기정은 참가 선수 56명 중 22번째로 달렸다. 초반 강력한 우승후보 아르헨티나의 자발라(1932년 LA 올림픽대회 우승자)가 2위와 150m 거리를 두고 선두로 뛰쳐나갔다 기온이 약간 높았지만 바람이 거의 없는 맑고 건조한 날씨라 숲 속에 들어서면 오히려 쾌적할 정도였다.

손기정은 10km 지점 5위(34분 10초), 25km 3위(1시간 24분 49초)로 가다가 마침내 28km 지점에서(1시간 35분 29초) 선두 자발라를 32초 차로 따라붙었다. 거리로는 약 150m. 그는 내친김에 29km 지점에서 자발라를 제쳤고(자발라 31km 지점에서 기권) 31km 지점에서 끈질기게 따라붙던 영국의 하퍼를 16초 차(75m)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나섰다.

31km 지점은 따가운 아스팔트길인 아푸스아우토반이 끝나고 다시 그루네발트의 숲 속으로 접어드는 곳이다. 손기정은 계속 이어지는 숲길에선 하퍼를 제치

준비된 마라토너 손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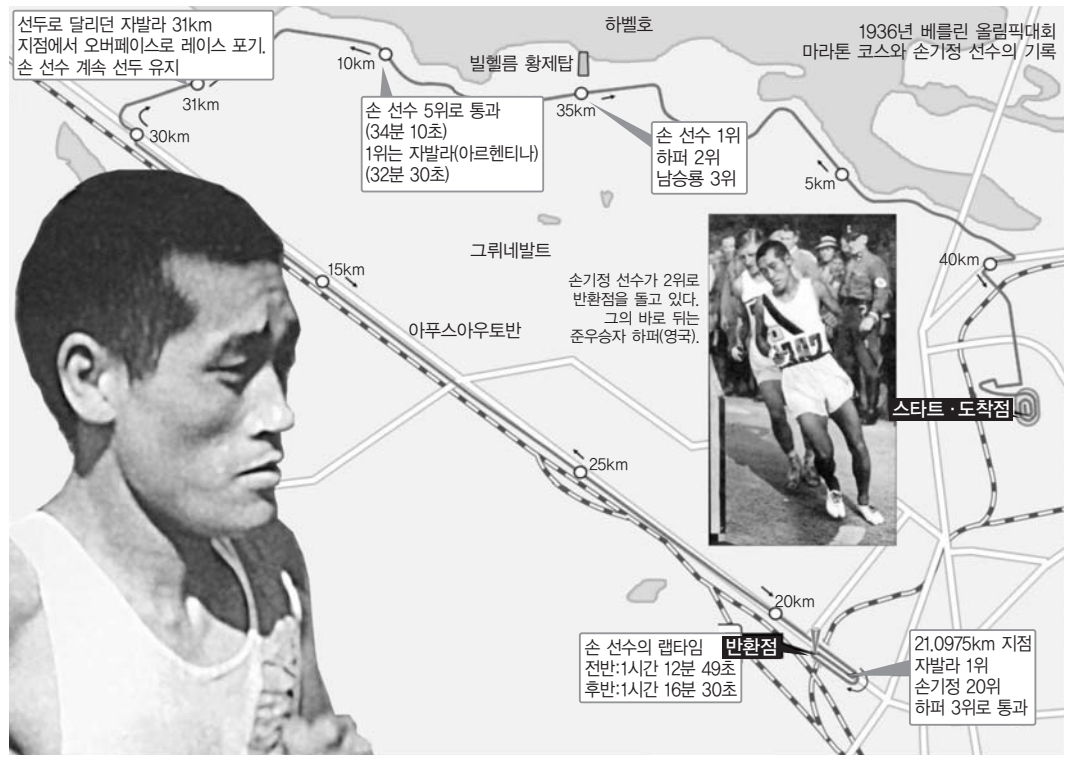
기가 힘들다고 판단해 아스팔트길이 끝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스퍼트를 해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우승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 100m 평균 21초 23의 빠르기다. 당시 역대 올림픽대회 사상 신기록이자 2시간 30분 벽을 처음으로 깬 대단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당시 세계신기록은 손기정이 앞서 1935년 11월 일본 도쿄 메이지신궁 대회에서 세운 2시간 26분 42초. 이 기록은 12년 뒤인 1947년 4월 손기정의 제자 서운복이 보스턴마라톤에서 2시간 25분 39초로 우승하며 갈아치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보스턴마라톤 코스가 규정보다 짧아 서운복의 기록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손기정은 1912년 8월 29일(음력) 한반도의 서북쪽 끝, 옛 만주에 접해 있는 신의주에서 아버지 손인석(1875~1935)과 어머니 김복녀(?~1941) 사이의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잡화점을 운영했지만 보잘것없었다. 어머니가 머리에 일용 잡화를 이고 행상을 해야만 겨우 먹고살 수 있었다.

어린 손기정도 방과 후에는 참외, 옥수수 행상을 하거나 겨울에는 군밤을 구워 팔며 약죽若竹보통학교 수업료(50전)와 학용품 값을 벌었다. 심지어 손기정이 털실을 사다가 직접 장갑 양말 등을 뜨개질해 팔기도 했다. 손기정은 틈만 나면 달렸다. 학교에 오갈 때뿐만 아니라 압록강변의 독, 모래 벌 등 아무 곳이건 가리지 않았다. 그의 단벌 옷은 늘 땀으로 젖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니는 아들이 달리기보다는 공부에 매진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들에게 일부러 잘 벗겨지는 여자고무신을 신게 했다. 하지만 손기정은 여자고무신 위를 새끼줄로 묶어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달렸다. 새끼줄에 쓸려서 발목에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달리기를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손기정은 “내가 달리기를 하게 된 것은 돈이 한 푼도 안 들기 때문이었어. 만약 스케이트를 살 수만 있었다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코스와 손기정 선수의 기록.

스케이팅 선수가 됐을 거야.”라고 말했다.

경영마라톤대회 입상으로 주목받기 시작

손기정은 1932년 고려육상경기회 주최의 경영마라톤(서울~영등포 왕복 로드레이스, 동아마라톤의 전신)에서 변용환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멀리 신의주로부터 원정 온 손기정군이 2위에 입상한 것은 우리 마라톤계에 있어서 장래 실로 듬직하고 힘찬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손기정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신의주에 있는 동익상회 점원으로 일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압록강 독길을 달렸다. 그러다 그해 봄 제2회 경영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숙소는 동익상회 주인인 공정규 씨의 배려로 마침 그의 저택이 있는 광화문 부근에 잡았다. 공정규 씨는 지금도 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는 공안과 원장과 한글 타이프라이터 발명가로 유명한 공병우 박사(1906~1995)의 부친이었다.

당시 대회는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을 스타트해 영등포를 돌아오는 14.5마일(약 23.6km) 코스에서 펼쳐졌다. 대회 하루 전, 손기정은 혼자 코스 답사에 나섰다. 그날 길을 잃었다. 마포와 영등포를 잘 구분하지 못해 끝내 반환점이 어디인지 찾지도 못한 채, 밤늦게 간신히 공 선생 댁에 돌아올 수 있었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됐다. 대회가 열린 3월 21일, 손기정은 삼각지까지 기세 좋게 선두로 달렸다. 그러나 막상 삼각지에 이르자 그곳 여러 갈래 길 중에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엉거주춤 제자리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이 뒤따라 온 변용환이 앞서 나갔다. 도리 없이 그를 뒤따랐다. 결국 손기정은 영등포 반환점까지 그렇게 변용환 선수를 앞세우고 갈 수밖에 없었다. 변용환이 1시간 21분 54초로 대회 신기록 우승, 손기정 1시간 25분 25초 준우승.

그러나 그는 이듬해 제3회 동아마라톤(광화문~청량리~망우리~광화문, 15



◀ 손기정(오른쪽 세 번째)이 외국 선수들과 함께 베를린 올림픽대회 스타디움을 나서고 있다.

▶ 피니시라인을 앞두고 막판 스피트하는 손기정.

마일)에선 1시간 24분 03초 2로 당시 장거리 1인자인 유해봉을 27초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3위는 남승룡이었고, 전해 우승자인 변용환은 도중에 기권했다.

스무 살에 늦깎이로 양정고보 입학

손기정은 1932년 제2회 경영마라톤 2위 입상을 계기로, 그해 봄 스무 살의 늦깎이로 육상경기 명문인 양정고보에 입학했다. 이후부터 손기정은 그의 타고난 달리기 재능을 마음껏 꽃 피웠다. 양정고보 4학년 때인 1935년 3월 도쿄 메이지신공대회에서 2시간 26분 14초로 비공인 세계기록을 세우더니 곧이어 4월 조선육상경기대회에선 2시간 25분 14초의 비공인 세계기록으로 우승했다.

결국 11월 제8회 메이지신공대회에서 2시간 26분 42초의 공인 세계최고기록으로 우승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손기정은 “이때는 달렸다 하면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그 누구도 겁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기정은 가슴이 두꺼운 데다 신장 167cm 몸무게 55kg의 마라토너로서 이상적인 체격을 타고났다.

하지만 그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려고 신발 바닥을 깎아내기도 하고 가위로 러닝셔츠를 도려내고 팬티를 잘라내기도 했다.

손기정은 늘 배가 고팠다. 그럴 땐 냉수로 배를 채우고 달렸다. 어느 땐 너무 배가 고파 도저히 달릴 수조차 없었던 적도 있었다. 손기정은 “난 배만 부르면 반드시 1등을 했어. 그 당시 밥만 충분히 먹고 달렸다면 기록이 더 좋았을 거야. 그런데 요즘 후배들은 그 반대야. 조금만 배가 부르면 달리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1등 해 본 사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1등을 할 수 있는 법인데……”라고 말했다.

손기정 “Me Korean Not Japan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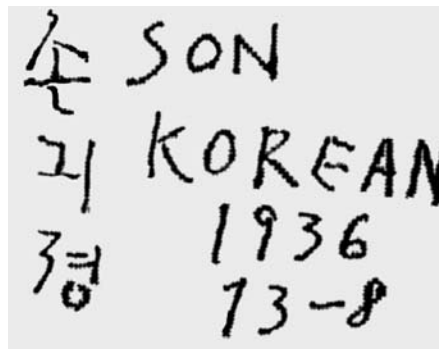
손기정은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 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는 당시 ‘마의 벽’으로 불리던 2시간 30분대 벽을 깨뜨리며 당당히 1위로 들어왔다. 하지만 우승자 손기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신발을 벗어 들고 트랙을 걸어 나갔다.

시상대 위에서도 시종 고개를 숙인 채 땅바닥만 내려다봤다. 굳게 다문 입은 금방 울음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손기정은 그 시상대 위에서 ‘내 생애 다시는 일장기를 달고 달리지 않으리라.’고 굳게 맹세했다. 그리고 실제 광복 전까지 단 한 번도 마라톤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훗날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만약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것을 알았다면 난 결코 베를린 올림픽대회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야. 나라 없는 백성은 개와 똑 같아. 난 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하면 머리에 월계관이나 씌워 주는 줄 알았어. 그때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

손기정은 베를린 올림픽대회 선수촌에서 연습할 때도 일장기가 달린 훈련복을 입지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색 훈련복을 입고 달렸다. 우승 후 각종 초청행사에도 일장기가 달린 단복은 결코 입지 않았다. 유일하게 손기정만이 그냥 양복 차림으로 나갔다. 일본인 단장이나 임원들이 뭐라고 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베를린 올림픽대회 기간 내내 일장기를 가슴에 단 것은 경기 당일 단 한 번뿐이었다. 당시 찍은 수많은 관련 사진 어디에도 일장기가 달린 옷을 입은 손기정의 모습은 눈 씻고 봐도 없다.

그뿐인가. 손기정은 팬들이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서슴없이 한글로 ‘손기정’이라고 쓰고 그 옆에 영문으로 ‘KOREAN’이라고 썼다. 어느 땐 사인과 함께 한반도 지도까지 그려 줬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KOREA”라고 대답하고 다시 한 번 천천히 “Me Korean Not Japanese”라고 말했다. 지금도 당시 베를



손기정의 친필 사인. 그는 자신이 조선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 한글로 사인했다. 오화석 씨가 수집 후 공개한 기념 엽서의 뒷면에 쓰인 것이다.

린 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이 사인한 방명록을 보면 한글로 ‘손기정’이라고 뚜렷이 적혀 있다.

손기정이 태극기를 난생 처음 본 것은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한 바로 직후였다. 당시 베를린에서 두부공장을 하던 안봉근(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이 손기정과 3위를 차지한 남승룡을 은밀히 집으로 불렀다. 안봉근은 다짜고짜 그들을 서재로 데려가더니 “이것이 태극기다. 우리 조국의 국기다.”라며 벽에 걸린 ‘아름다운 무늬’를 가리켰다. 손기정은 “그때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며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온몸이 감전됐고 우리 민족은 저 태극기처럼 면면히 살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말했다.

2009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대회 남자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과 준우승자 영국인 어니스트 하퍼의 친필 사인이 나란히 들어 있는 엽서가 73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올림픽대회 우표 수집가인 오화석 씨가 입수한 그 기념엽서는 당시 독일 신문에 난 ‘손기정과 하퍼가 마라톤 반환점을 나란히 돌고 있는 사진’을 오려서 뒷면에 붙인 뒤 그 위에 두 사람의 사인을 받은 것이다.

손기정이 사진 위에 한글과 영문으로 ‘손기정 SON KOREAN 1936 13-8’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마라톤 우승을 한(8월 9일) 나흘 뒤인 8월 13일 팬에게 사인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의 하퍼도 ‘E. HAPER Olympic Games

Berlin marathon 2nd’ 라고 사인했다. 자신이 ‘베를린 올림픽대회 남자마라톤 준우승자 하퍼’라는 뜻이다.

손기정은 1936년 10월 8일 프로펠러기를 타고 금의환향했지만 환영 행사는 모두 금지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여의도비행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군중들과의 접촉을 막았다. 또한 양정고보 졸업반이었던 그에게 학교에 안 가도 졸업을 시켜 주겠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 조선체육회의 ‘손기정 마라톤 제패기념 체육관 건립 모금운동’도 중지되었다.

손기정 뒤엔 늘 사복을 입은 형사가 따라 붙었다. 숨이 막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손기정은 마침내 ‘우승 같은 것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제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손기정은 1937년 3월 양정고보를 졸업하고 보성전문 상과에 입학했지만 형사들의 감시가 계속되자 1937년 1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하고 ‘다시는 육상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본 메이지 대학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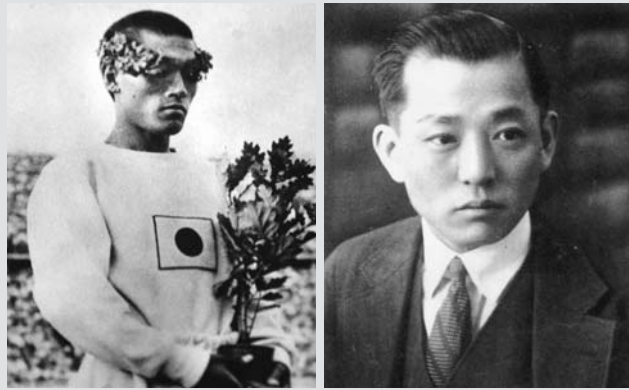
서운복,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길러낸 지도자

광복 후 손기정은 마라톤 지도자로 묵묵히 후배들을 길렀다. 전국의 유망주 20여 명을 뽑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여 가며 훈련을 시켰다. 정치 쪽에서 유혹이 많았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훈련은 매일 새벽 장독대의 태극기 아래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수시로 김구 선생, 이범석 장군 등을 모셔다가 민족정신을 북돋는 강연을 듣기도 했다.

제자 서운복은 “손 선생님이 우리 합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손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흰 쌀밥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너도나도 서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1947년 서운복이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최고기록

손기정의 금메달과 일장기 말소사건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마라톤 우승 후 월계관을 쓴 손기정 선수 원본 사진(왼쪽)과 손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한 16일 후인 1936년 8월 25일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이 터졌다. 손기정 우승은 당시 일제 식민지였던 한반도 땅을 영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거의 한 달 내내 전국이 '기쁨의 눈물바다'였다.

하지만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손기정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 버리고 싶어 했다. 동아일보는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시상식 사진에서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 버리고 내보내 한국인들의 아픔과 분노를 표시했다.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 체육기자 이길용, 사회부장 현진건 등이 투옥됐다. 동아일보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 배편 귀국길의 싱가포르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은 손기정은 “나의 심정을 대변해 준 동아일보에 감사한다. 고초를 겪고 있는 기자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해방 후 동아일보에 복직된 이길용은 “운동기자 생활 16년! 이처럼 흥분되고 기꺼운 때가 또 언제 있었으랴. 나는 이 나라의 아들인 손 선수를 왜놈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유니폼 일장기 마크에서 엄숙하게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가 열렸던 잠실 주경기장 앞에 조성된 '올림픽 스타의 거리'. 손기정(위)과 남승룡의 사진이 보인다.

으로 우승했다. 1950년 보스턴마라톤에선 역시 그가 길러낸 함기용, 송길윤, 최윤철이 1, 2, 3위를 휩쓸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대회에서 최윤철이 4위, 1956년 멜버른 올림픽대회에선 이창훈이 4위를 기록했다. 모두 손기정의 작품이었다.

손기정이 월계관을 쓴 지 정확히 56년 만인 1992년 8월 9일 황영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일본의 모리시타를 제치고 우승했다. 그날 손기정은 1위로 피니시라인에 들어온 뒤 기진해 쓰러진 황영조의 모습을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울음을 삼켰다. 손기정은 그 당시 심정을 동아일보에 이렇게 썼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가닥도 잡을 수 없었다. 태극 무늬를 가슴에 단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손기정은 가정적으로 불행했다. 1939년 단거리 육상경기선수였던 평양 출신 강복신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1944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1935년 60세의 나이에 타계한 그의 아버지와 1941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임종도 하지 못했다.

손기정은 늘 북녘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말년의 손기정은 “통일원에 방북 신청을 해도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자신의 고향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1946년 평안북도체육회 창립 당시 북측은 그에게 끈질기게 참여를 요구했지만 손기정은 이를 뿌리치고 서울로 탈출해 버렸다. 아마 이것이 궤뺌죄에 걸렸을 것이다. 손기정은 “1936년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것도 그들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손기정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땅을 끝내 밟아 보지 못하고 2002년 11월 15일 0시 40분 눈을 감았다. 그의 유해는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2011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손기정 선생의 약력을 바로잡아 달라는 대한체육회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홈페이지 정보를 수정했다. 일단 선수 소개란에 ‘손기정Shon Kee-chung’이 일본식 이름인 ‘키테이 손Kitei Son’으로 표기된 시대적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한 자료를 새로 올린 것. 종전 IOC 홈페이지에는 ‘1936년 베를린 대회 마라톤 우승자인 일본의 키테이 손은 일본에 점령 당한 한국의 손기정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대 한국선수단 기수를 맡고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서는 성화주자로 나섰다’는 짧은 설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정보는 분량이 5배가량 늘어났고, ‘한국의 손기정(남한)은 1935년 세계최고기록을 세웠다’로 시작해 ‘한국이 일본에 강점되었기 때문에 손기정과 동료 남승룡은 일본 이름으로 올림픽대회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다. 손기정은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다’라고 소개했다. 또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대회 당시 항상 한국 이름으로 서명하고, 어느 나라 출신이냐는 질문에



만년의 손기정 옹과 부인 송영숙 씨.

한국인이라고 답하며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다른 나라임을 강조했다라는 사실과 한국에서 벌어진 시상식 사진의 일장기 말소 사건도 거론했다. 그러나 손기정의 공식 이름을 ‘키테이 손’에서 ‘손기정’으로 바꾸고 국적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고쳐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림픽대회 참가 당시 등록된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 것은 역사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IOC 측의 설명이었다.

또 2012년 문화재청은 손기정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하면서 받은 금메달과 우승 상장, 시상대에서 쓴 월계관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3

한국 육상경기의 좌절과 공백기

손기정의 올림픽대회 마라톤 세계 제패는 이 땅에서 제2의 손기정을 양산할 조짐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1940년 제12회 올림픽대회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조선의 청년들은 올림픽대회 진출을 위한 꿈을 품었다. 도쿄 올림픽대회는 신흥 일본이 국가의 위신을 걸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더구나 1940년은 일본 건국 2600년에 해당되는 해라며 일제는 올림픽대회 유치에 온 힘을 쏟았다. 1936년 7월 30일 일제가 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손기정의 쾌거에 고무된 조선체육회는 우수 선수를 올림픽대회에 대거 참가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마라톤, 역도, 복싱 등 유망 종목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본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일본 군부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일제는 1937년 이른바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더니 결국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이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를 양산하는 단초가 되었다.⁰⁰¹

일본 군부는 이에 올림픽대회 개최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일 군부의 발언권은 일본의 실세를 대변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결국 일본 각



일제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일본 국기 게양과 국가의 제창이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조선체육회를 해산하고 급기야 우리 체육을 말살하기에 이른다.

의는 1938년 7월 15일 올림픽대회 중지를 결의하고 대회를 반납했다. 창립 이래 18년, 이제 막 올림픽대회를 향해 총력전을 버르던 조선체육회의 의지는 일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⁰⁰¹ 1937년 7월 7일에 베이징 서남쪽 방향 루거우차오(蘆溝橋)에서 일어난 발포 사건. 일본군의 자작극으로 중일전쟁의 발단이 됐다. 이날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 중대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일본군 병사 1명이 행방불명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군은 이를 핑계로 중국군 주둔 지역으로 일본군을 보내 수색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중국군은 거절했다. 일본군은 8일 새벽 중국군 진지에 포격을 시작하고 불시에 공격하여 루거우차오를 점령했다. - 위키백과.

조선체육회 해산과 전시 총동원 체제

육상경기의 열기는 1937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황민화 통치정책을 시행해 학교에서는 황국신민체조를 통해 학교 체육의 군사훈련화를 도모하고, 일반 청년에게는 전시 체력관리라는 명목 하에서 체력장검정을 실시해 전쟁 수행을 위한 체력만을 중시했다.⁰⁰²

1938년 우리 손으로 개최한 최초의 연례 육상경기대회인 연희전문 주최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가 돌연 중단을 발표했다. 이 행사를 후원하던 동아일보는 1938년 9월 16일자 신문에 ‘연희전문학교에서 예년 주최하여오던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를 금년만은 사정에 의하여 중지하기로 되었다’라는 내용을 실었다.

일본은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 내 스포츠를 통제했다. 경기의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각지의 경기 주최 단체를 각 연맹에 가입시켜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 산하 기구로 만들어왔다. 1933년 10월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이 창립했는데 가맹 학교는 경성제대, 경성예과,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평양의학전문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등 12개교였다. 이들의 발기 목적을 보면 ‘일본학생육상경기연합의 정신에 체體하고’ ‘전조선중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다.

1938년 4월 조선체육협회는 앞으로 육상경기는 조선체육협회 산하 전조선육상경기협회가 주최한다고 선언하고 연중 사업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중 연희전문 주최 전조선중등육상경기대회 앞에 조선체육협회 주관에 덧붙여진

⁰⁰² 손환, 조선체육진흥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005, 제14권 제2호, p.30.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결국 이 대회는 그해에 열리지 못했다.

1938년 7월 1일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창립 총회가 열려 총독부 학무국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연맹은 일본독지간호부인회 조선본부에서부터 조선무역협회, 조선체육협회 등 산업계, 종교계, 운동계를 망라했고 특히 단체라고 할 수 없는 각 신문 방송 통신사들이 편입된 것도 눈에 띈다.

며칠 뒤 1938년 7월 4일 우리 손으로 만든 조선체육회가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조선체육협회와의 합체를 발표했다. 말이 합체이지 조선체육회의 일체 사업과 재산을 조선체육협회에 양도하는 일방적인 흡수였다. 1920년에 창립한 조선체육회는 육상경기·축구·정구·농구·탁구·배구·씨름·유도·검도·역도·수영을 포함하여 18회의 종합대회를 개최했고, 마라톤 6회, 빙상 10회 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선 스포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럼에도 “종래에 경성에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협회 2개 단체가 있었다. 현시 사정에 2개 단체의 각립한 존재가 필요치 아니한 고로 합체함이 가하다.”는 내용에 대해 조선체육회 이사진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체육회의 해산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1939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조선체육회는 시국의 동향에 따라 독립할 필요가 없다 하여 조선체육협회에 합체하기로 중의가 일치되어…이리하여 19년간의 역사를 가진 조선체육회는 완전히 사명을 다하고 체육협회에 합병일체가 되었다”라며 해산 이유를 ‘시국의 동향’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1938년 8월 30일 총독부는 정무총감의 통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선일체에 기초하여 인격의 도야와 황국정신의 양양, 단체훈련으로서 합동체조대회·단체행진 등 다수가 참가할 수 있는 집단적 체육행사의 실시 장려, 운동경기 중 용어는 가급적 국어(일본어)를 사용할 것, 각도체육협회가 각종 체육운동을 망라하며 읍면을 단위로 세포조직을 강화할 것, 운동경기 종목별 단체는 조선체육협회의 통제를 받을 것 등이다. 이 통첩에 따라 ‘올림픽’과 같은 외

국어룰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체육협회도 오래 가지 못했다. 1942년 2월 14일 총독부 지시 아래 조선체육진흥회라는 관제 체육통제기관이 결성돼 1945년 광복되기까지 체육 통제의 시대가 계속되었다.⁰⁰³

조선체육진흥회는 한층 더 노골적으로 황국신민화를 꾀했고, 국민체육을 전시 체제 준비의 일환으로 이용했다. 조선체육진흥회의 창립 시 임원 구성을 보면 총재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회장은 후생국장으로 되어 있다. 정무총감은 조선 총독 바로 아래 직위로 군사통수권을 제외한 사법 행정을 통괄하던 직책. 정무총감이 직접 조선체육진흥회 초대 총재가 된 것으로도 관제 단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42년 2월 6일자 경성일보에 실린 조선체육진흥회 설립 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 조선체육협회를 중심으로 각도체육협회 및 각종 체육운동단체를 통제해 이것이 조직 내용의 충실 및 사업의 진흥을 지도, 조장했는데, 이들 체육단체는 동호자의 임의적 단체로서 그 지도이념, 조직 운영 등에 있어 고도의 국방국가를 건설하고 국방력의 증강에 힘써야 하는 체육운동의 본의에 철저히 못한 감이 있다. 따라서 체육운동을 국가의 요청에 즉응해 정말로 유위한 황국신민을 양성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발전하고 이것을 관리해서 더욱더 강력한 지도통제를 갖추는 요긴한 것으로서 조선에 있어 운동단체를 일원적으로 지도통제하고 행정조직과 표리일체의 관계에서 그 활동의 보편적 강화를 기도하

⁰⁰³ 조선체육협회의 가맹 지방조직까지 흡수해 모든 체육단체의 일원화를 꾀한 조선체육진흥회도 제2차 세계대전의 격화로 1943년 제19회 조선신궁대회를 끝으로 흐지부지 해체되었다.-김광희, 2001, p263.

기 위해 체육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⁰⁰⁴

부연하자면 조선체육진흥회의 주 목적은 고도국방국가의 건설 및 대동아공영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황국신민으로서 국민의 체력을 단련하는 데 있었다. 이런 의도는 조선체육진흥회의 방침 및 요강의 마지막 항목 ‘체육비는 국방비가 되는 관념에 입각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어온 여러 운동경기대회의 성격도 달라졌다. 1925년 처음 시작된 조선신궁봉찬체육대회(조선신궁경기대회)는 1942년 제18회 대회부터 조선체육진흥회 주관으로 바뀌면서 ‘경기’ 중심에서 ‘체육’ 중심의 대회로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집단체조라든가 총검도, 직장체육 등을 선보이는 국가동원 체육행사가 된 것이다. 이듬해인 1943년에는 제19회 대회를 조선총독부가 직접 개최하기로 한다. 이는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체육대회를 일종의 병사 양성 훈련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후 조선신궁봉찬체육대회는 1944년 제20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⁰⁰⁵

⁰⁰⁴ 손환, 앞의 글, pp.30~31 재인용.

⁰⁰⁵ 손환, 앞의 글 p.37.